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0년
9월 2일
(목요일)

시사프리

강북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돌입

예결특위 위원장 구본승 의원, 민생처리특위 위원장 박문수 의원 각각 선출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지난달 26일 의회 본회의 장에서 제144회 임시회 회기를 시작하는 본회의를 열고, 6일까지 12일간을 일정으로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날 임시회는 전체의원 14명 중 13명과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하철승 행정관리국장의 '2010년도 제2회 강북구 일반·특별회계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시작됐다.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비효율과 불합리성의 문제는 없는지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강북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구본승·김도연·김동식·이백균·이종순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구본승 의원 부위원장은 김도연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된 구본승 의원은 한정된 자원속에서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임시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각오를 말했다.

이어 민생처리관련 특별위원으로는 김도연·김동식·박문수·이백균 의원이 선출됐으며, 위원장으로는 박문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도연 의원이 선임됐다.

민생처리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문수 의원은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집행부의 불편부당한 민원처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별로 의사일정을 진행한 뒤 다달 6일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영일기자

강북구, 일자리사업 참가자 모집 '만60세 이하' 나이제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가 유일하게 만60세 이하 규정... 문제점 지적

서울시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은 지난 26일 제14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공동체 강북구 일자리사업 참가자 모집 과정 중 강북구청이 만 60세 이하 나이 제한을 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구본승 의원은 "지난 8월초 여러 주민들로부터 절박한 전화를 받았다"며 "7월 23일 종료된 희망근로사업 후속으로 진행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고문에 만 60세 이하로 나이가 제한되었다는 전화였다"고 말하며, 가정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오던 수백여명의 주민들이 이러한 규정으로 일자리사업에 신청도 못하고 원천 제외 된 것에 대해 신상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삭감 심의된 예산을 61세 이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에 증액 편성해 줄 것'을 제안했고, 구 집행부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해명과 61세 이상 주민이 참여토록 일자리 확대 추경예산을 10월 초순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근로기간 기준 9월1일부터 12월 31일 약 4개월간 2010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비교현황에 따르면, 강북구는 선발인원 345명으로 만18세 이상~만60세 이하 근로능력자에 대해 우선순선발 고용하며, 서울시 자치구 25곳 가운데 강북구와 미파악된 동대문구, 관악구, 강남구를 제외 한 나머지 구는 평균 만18세 이상~만6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특히, 종로구의 경우 별도의 나이제한 공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북구 관계자는 "연초 대부분에 사업예산이 본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자리 사업에 비중을 높여 많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나이를 60세 이하로 제한 했다"며 "이 예산으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지만, 노인복지과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에 더욱 신경을 쓰겠으며, 위 사항에 대해 더 검토 후 소관 상임위에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구본승 의원은 주민들께 힘이 되고 희망을 함께 만드는 강북구의회와 강북구청 집행부가 되길 바라며 '지역일자리예산 확대'를 위한 총의를 모을 것을 촉구했다.

유영일기자